

# 통도(通度)의 가풍(家風)



창건주 해동 율조(律祖) 자장(慈藏)대국통(大國統)께서는  
금강계단 적멸보궁에

“萬代輪王三界主 雙林示寂幾千秋”

“만대의 전륜성왕 삼계의 주인, 쌍림에서 열반하신 지 몇 천 년이던가,”

“眞身舍利今猶在 普使群生禮不休”

“진신사리 여전히 지금도 있어,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려 하네.”

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이것이 통도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. 영축산 통도사 전 대중은 계율과 청규와 종헌 종법에 따라 창건주 자장스님의 간절한 염원을 생각하며, 몇몇 스님들의 다른 생각으로 야기된 불미스러운 문제는 화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(善知識) 방장(方丈)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. 비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하고, 비 온 후에 하늘은 더욱 푸르고 맑듯이, 앞으로도 화합 대중인 영축 대중들은 하나 된 청정승가로서 산중총회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, 수행 정진하여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.

**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 
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**